

삼성전자, 2009 캘거리 국제기능올림픽 후원!



삼성전자가 캐나다 캘거리에서 개최되는 '제40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World Skills Calgary 2009)'에 글로벌 공식 후원사로 참여 한다.

삼성전자는 제조업의 근간인 전세계 기능인력 양성과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국제기능올림픽 후원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선진국가 및 신흥국가 등 국경을 초월한 기술 발전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존경받는 기업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국제기능올림픽대회와의 후원 계약을 통해 개폐막식 등의 브랜드 노출과 대회 로고 사용, 홍보관 운영 등의 후원사 권리를 획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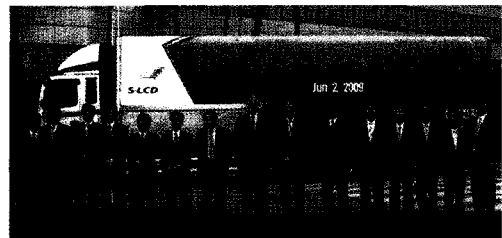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지난 2006년 노동부와 '국내기능올림픽' 지원 협약을 체결한 이래, 2007년에는 '국제기능대회(World Skills International)'와 '시즈오카 국제기능올림픽대회(World Skills Shizuoka 2007)' 등을 후원한 바 있다.

이번 대회에는 삼성전자 소속으로 '메카트로닉스'에서 이성범, 양광현선수가, '정보기술'에서 이상기선수가 각각 국가 대표로 참가 예정이며, 그룹 전체적으로는 9직종에서 3개사 10명이 국가대표로 선발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81년 대회부터 지난 '07년 대회까지 총 10명의 직원이 국가대표로 참가해 메달을 획득한 바 있으며, 그룹 전체적으로는 5개사에서 23명이 메달을 획득했

다. 오는 9월1일부터 7일까지 캐나다 캘거리 스탬페드(Stampede) 파크에서 개최 예정인 이번 대회는 51개국에서 1천여명의 선수가 참가 할 예정이다.

S-LCD, 8세대 두번째 라인 본격 가동



삼성전자와 소니가 합작한 S-LCD가 8세대 두번째 LCD 패널 라인의 본격 가동에 들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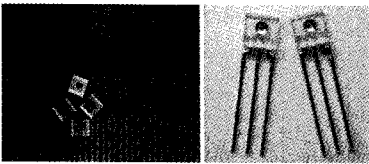
S-LCD는 2일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 크리스탈밸리에서 8-2 라인의 양산 출하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소니의 하워드 스트링거(Howard Stringer) 회장, 요시오카 히로시(Yoshioka Hiroshi) 부사장, 삼성전자의 이윤우 부회장, 이재용 전무, S-LCD의 장원기 CEO, 오노데라 준(Onodera Jun) CFO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 했다.

S-LCD 8-2 라인은 투자금액이 1조 8,000억원이며, 2,200×2,500mm 크기의 기판을 사용한다. 8-2 라인은 32인치, 46인치, 52인치 패널을 주로 생산해 삼성전자와 소니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S-LCD는 LCD 패널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S-LCD는 그 동안 7-1라인과 8-1라인의 안정적 가동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에 가동하는 8-2라인의 생산능력을 연내에 월 7만매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S-LCD 장원기 CEO는 "삼성과 소니가 함께 현재의 위기상황을 잘 돌파하고 LCD-TV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지속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S-LCD 7-1라인과 8-1라인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번에 가동한 8-2라인에

서도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LCD는 삼성전자와 소니의 합작회사로 2004년 4월 설립돼, 2005년 4월 7-1라인, 2007년 8월 8-1라인을 가동했고, 이번에 8-2 라인 가동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양사에 LCD 패널을 공급하게 됐다.

### 한국고덴시(주) LCD 백라이트용 ALS 개발



광반도체 센서 및 LED, 광통신, Solar Cell 개발/제조업체인 한국고덴시(주)는

LCD Backlighting의 빛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Ambient Light Sensor(ALS) IC KOE1615&KOE5501을 개발하였다.

ALS는 빛 감지센서를 적용해 대낮이나 조명이 있는 공간에서 패널에 빛이 들어오면 휘도를 조절해 화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전력은 낮춰주는 기능을 한다.

이 제품은 하나의 Chip에 Photodiode와 Amplifier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이며, Lead Dip & Mini COB Type Package 형태로 입사광량의 우수한 선형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빛 Source에 상관없이 주변광 검출에 더욱더 안정적이며 타제품 대비 25%이상의 낮은 감도변화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전자장비의 LCD Display의 밝기를 조정하기 위해 조도Data를 방출하여, 전력소비를 줄이고 LCD 밝기를 조절함으로써 시감도(Visibility)를 높여준다.

Mobile Phone, LCD TV등 다양한 Display Backlighting에 적용되는 KOE1615&KOE5501는 COB,Dip Type의 제품을 Side View, Top View Type의 SMD실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한층 강화하였다.

특히 KOE1615의 경우 초소형 Package(1.66mm,

1.5mm, 0.5mm(t))을 구현하여 초소형 Set에 적합하다  
한국고덴시는 축적된 Package 기술력으로 고객의 다양한 디자인과 Application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Package 다양화를 진행중이며, ALS Photo Transistor와 Photo darlington 2종과 더불어 제품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LED제품 설비증설

한국고덴시는 최근 닌텐도의 가정용게임기에 사용되는 LED제품의 수주증가에 따라 2억6000만원을 투입, 설비를 증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가정용 게임시장을 휩쓸고 있는 닌텐도에 지난해부터 LED를 공급하고 있으며 올들어 LED제품에 대한 수주량이 증가해 생산설비 라인을 증설중이다.

닌텐도 외에도 일본 솔릿머신·게임기 업체에 LED 패키지 제품을 공급해 향후 LED 매출 비중을 전체의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고덴시는 최근 조명분야에 각광받고 있는 표시용 LED 뿐만 아니라 적외 발광다이오드(IRED), LED를 이용한 광센서 분야의 초소형·고효율 LED패키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LED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 삼화콘덴서, 중국전력원과 SVC 양산 MOU



삼화콘덴서(대표 황호진)는 7일 중국전력원(CEPRI)과 아시아 및 러시아 지역 SVC(정지형무효전력보상

장치) 판매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화콘덴서는 이번 체결을 통해 중국전력원이 보유한 SVC 기술을 활용,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인 SVC제품 양산 및 판매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SVC 필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콘덴서뱅크와 리액터(Reactor) 등을 중국 전력원에 공급, 중국시장의 확고한 고객을 확보하게 됐다. 중국전력원은 중국 전력망 공사의 적극적 지원으로 설립된 중국 전력망 산하 전력제품 생산기관으로 총 12개의 회사로 구성된 대표적 전기전력기관이다.

SVC는 정지형 무효 전력 보상 장치(Static Var Compensator)의 약자로 대형전력망에 설치, 전기품질과 효율을 높은 수준에서 균일하게 유지시키며, 전체 무효전력량을 연속적으로 제어하는 전력장치중 하나다. 현재 철강, 중공업 등 대형전력망에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부하변동이 심한 전기로 등을 사용하는 대형공장 전력망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화콘덴서는 중국전력원과의 이번 MOU체결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SVC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고, 풍력, 태양광 등 그린오션사업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 삼화콘덴서는 이번 계약으로 국내에서 SVC의 자체 양산 및 판매가 가능한 최초기업으로 발돋움했으며, SVC사업의 중국·러시아·아시아 시장 규모가 대략 2500억원에 달해 향후 매출 신장이 기대된다.

황호진 사장은 "중국전력원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기존 삼화콘덴서가 보유한 SVC 기술을 마음껏 발휘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협약으로 세계 대형 업체들과의 기술력 경쟁에서도 뒤지지 않을 레퍼런스가 확보된 만큼 향후 시장점유율 확대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양엔지니어링 삼성전자1차 협력업체로 선정**  
 신양엔지니어링(대표 양희성)은 휴대폰 케이스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정밀사출금형과 관련해 28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휴대폰 외장부품 제조 업력만 12년이다. 또 냉각구조 및 게이트구조의 최적화로 높은 생산효율성을 자랑한다.

최근 스마트폰을 포함한 일반 휴대폰들의 디자인 경향은

LCD 크기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LCD를 보호하는 동시에 디자인 측면에서도 틈이 보이지 않는 깔끔한 케이스가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다기능으로 빈도수가 높아진 스마트폰을 위해 내구성 있는 케이스는 최신 트렌드에 필수인 부분이다.

신양엔지니어링은 이런 측면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 정밀 금형 설계 및 제작 기술은 물론이고 △고속 사출 △UV 코팅 △외관 증착 △진공 증착 등에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삼성전자에 휴대폰 케이스를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로 선정됐으며 삼성전자의 핵심 휴대폰 케이스를 수주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회사가 만든 대표적인 휴대폰 케이스로는 1000만대 판매를 돌파한 일명 '벤츠폰'이며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수출 모델인 터치스크린폰 'GT-S5230'이 있다.

신양엔지니어링은 인몰드(Inmold) 공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케이스 표면에 그림을 접착하는 스크린 방식이 많이 쓰였지만 이는 외부 충격에 약했다. 인몰드 공법은 그림을 접착하지 않고 케이스 내부에 그림을 넣어 사출하기 때문에 손상 없는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젊은층에 인기를 끌고 있는 삼성전자의 터치스크린폰 '햅틱팝' 케이스가 바로 인몰드 공법으로 만든 것이다.

**LG전자, 비보이 마케팅으로  
 중남미 시장 공략 강화**



LG전자는 지난 7일부터 28일까지 브라질을 시작으로 베네수엘라, 페루, 콜롬비아, 칠레, 과테말라, 멕시코 등 중남미 7개국에서 중남미 최대 비보이 축제인 'LG 비보이 챔피언십 2009(LG B Boy Championship 2009)'를 개최했다. LG전자는 이 행사에서 전략제품인 아레나폰, 쿠키편 및 음악을 좋아하는 중남미 소비자들 위해 음악기능을 특화한 뮤직폰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했다. 매 행사마다 2,000여명 이상의 관람객이 운집해 비보이들의 춤사위에 열광했다. LG전자는 올해 말 각 국 1위 팀 모두를 초청해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중남미지역 결승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열정적인 성향의 중남미 고객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이 행사를 통해 LG전자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은 물론 올 1분기 중남미 휴대폰 시장에서 사상 최대 점유율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2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trategy Analytics, SA)에 따르면 LG전자는 올 1분기 중남미 시장에서 360만대의 휴대폰을 판매해 지난해 동기 대비 2.7% 상승한 16.7%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LG전자 중남미지역본부 변경훈 부사장은 "비보이의 열정이 젊고 역동적인 LG 브랜드이미지와 조화를 이뤄 중남미 휴대폰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라며, "LG전자는 이 지역에 특화된 제품 및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선보여 시장 확대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LG전자, 고화질 엔터테인먼트용 '엑스노트 R580' 출시

LG전자가 영화나 3D게임에 최적화된 고화질 기술 및 기능을 적용해 HD급 화질을 즐길 수 있는 '엑스노트 R580' 노트북 2개 모델을 9일 출시했다.

LED백라이트 기술과 16:9 HD 플러스급의 고해상도(1600x900) LCD로 선명하고 실감나는 영상을 제공하며, HD영화 감상시에도 상하 여백없이 전체화면으로 감상할 수 있



다.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ODD)를 적용, HDTV와 간단하게 연결만 하면 대화면으로 영화 등을 즐길 수 있어 휴대용 블루레이 플레이어로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래픽 카드는 최신의 엔비디아 지포스 GT 130M 3D를 내장해 보다 실감나는 3D 게임을 할 수 있다.

인텔의 센트리노2 CPU 기술을 채택해 HD영상을 끊김없이 즐길 수 있으며, 처리속도가 50% 향상된 강력한 멀티태스킹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터보메모리(버전 1.8)를 적용해 자주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함으로써 로딩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엑스노트 R580은 ▲ 숫자전용 키보드 ▲ 스마트 웹캠/유캠뷰어 ▲ e-SATA, HDMI의 최신포트 ▲ PC상태를 보기 쉽게 해주는 스마트 인디케이터 ▲ 편리하게 시스템을 복원해주는 스마트 리커버리 등을 하나로 묶은 스마트팩을 탑재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크롬도금의 힌지(본체와 LCD 연결부위), 프리즘 모양의 LED 터치센서와 하이그로시(고광택) 재질의 LCD 테두리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연출하며, 흰색과 검은색의 날렵한 외부 디자인도 사용자의 감성을 충족시킨다.

탈부착이 가능한 ODD를 탈착하면 약2.5kg으로 무게가 줄어 휴대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제품 가격은 160만원에서 200만원대이다.

LG전자 HE마케팅팀장 이우경 상무는 "이번 엑스노트 R580은 HD영화 및 3D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용도 활용이 많은 노트북 사용자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이라며, "LG전자는 소비자들의 인사이트(Insight: 통찰) 분석 결과를 반영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해 올 하반기 노트북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